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sup>16</sup>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sup>17</sup>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sup>18</sup>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sup>19</sup>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sup>20</sup>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sup>21</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눅 8:16-21)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속 사람으로부터 와서 곧 사람을 통해 표현되고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선과 참, 진실과 공정을 오직 자신과 세상을 위해 말하고 실행할 때는 그는 자아로부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 사람이 아닌 오직 곧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모든 행위나 일들은 다 악하며, 만일 그 안에 천국 운운함이 있어도(*if heaven is regarded in them*) 그건 다 공로이며(*meritorious*), 그래서 그런 건 죄다 아주 사악한(*iniquitous*) 것입니다. (AE.794:3)

※ AE(*Apocalypse Explained*, 계시록 해설) 위 794번 글 3번 항에 대한 Age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d all good and truth are from the Lord and not from man, because they are done from the internal through the external. But when a man does and speaks what is good, true, sincere, and just, for the sake of self and the*

눅8:16-21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world he does and speaks them from self, because from the external man without the internal; and such deeds or works are all evil, and if heaven is regarded in them they are meritorious, and all such are iniquitous.*

이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에 관한 주석 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모든 동네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동네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 영어 성경에는 모든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 영적 의미로 ‘종교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다양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주님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가끔 이기적인 목적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동기가 순수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실천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진리가 좋아서 새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인내로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주님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은 그들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본문 16절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16</sup>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불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리고 그릇과 평상은 진리의 지식  
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릇  
은 진리의 지식을 뜻하고, 평상  
또는 침상(bed)은 교리의 지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릇이 진  
리의 지식을 나타내느냐 하면, 성  
경의 문자적 진리들은 주님으로  
부터 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내  
적 진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  
니다. 문자적 진리를 모르면 내적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  
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그  
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침대  
가 교리의 지식을 나타내는 이유  
는, 신앙인들은 마치 침대에서 쉬  
는 것처럼 교리 가운데서 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대는 교리  
의 지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등불

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교  
회를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등경  
은 등불을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등경은 교회와 천국을 의미합니  
다. 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  
람들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빛을  
통해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  
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  
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빛나십니다. 많  
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칭  
송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  
을 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라  
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  
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  
면서 세상을 어둠에서 구하십니  
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  
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 안에도  
등불과 같은 믿음이 있고, 그릇이  
나 침대 수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곡식과 가  
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이 바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것입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자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등불과 같은 믿음이고, 누구의 믿음이 가라지의 믿음인지는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17</sup>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 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sup>18</sup>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등불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과, 그릇이나 침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육신의 옷을 벗고 내면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그동안 숨겼던 여러 가지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그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그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또는 위선자였는지 진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 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생각하며 항상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천국의 비밀’ 2449번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에 영계로 오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삶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 선한 사람에게서는 악과 거짓이 떨어져 나가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선과 진리가 떨어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나간다. 그 이유는 선한 사람은 선과 진리를 통해 주님께 의해 천국으로 들어 올려지고, 악한 사람들은 악과 거짓을 통해 지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듭난다 해도 악하고 거짓된 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60%나 70% 정도는 선한 것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나 40% 정도는 악한 것을 가지고 가겠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떼어내시고 거기에다 선한 것을 채워서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진실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선한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리시고, 대신 악한 것을 채워서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악을 떼어내시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선을 떼어

내실까요?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을 영어로 ‘ruling love’라고 부릅니다. 룰(rule)이란 말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uling love는 내면에 있는 애정 가운데 지배적인 애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지배적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배애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에서는 ‘주도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한 사람들의 주도적 사랑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의 주도적 사랑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변두리에 위치한 사랑이고, 주도적 사랑은 어디까지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19</sup>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sup>20</sup>어떤 이가 알리되

눅8:16-21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으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을 찾으러 나가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교회를 이루는 믿음과 사랑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켜 ‘**너의 어머니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하고, 요한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 체어리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는 체어리티, 인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

머니가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들이 믿음과 사랑을 뜻하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영계에서는 육신의 친족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은 누구일까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랑의 색깔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와 가장 비슷한 믿음의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친척이 되고, 아내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한 색깔의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영적 의미로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믿음과 사랑을 뜻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교회로부터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서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믿는 교회를 뜻합니다. 믿음에 따른 삶이 없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sup>25</sup>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sup>26</sup>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 다 하나 <sup>27</sup>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눅13:25-27)

여기서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는 믿음과 인애의 삶을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머니를 만나러 나가시지 않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이루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믿음만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의 행위를 분리시키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며, 옳지 않습니다. 믿음만의 신앙도 물론 잘못이지만, 믿음과 삶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리의 등불이 되어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새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때 진리의 지식만 있고 삶이 없는 상태로

눅8:16-21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들을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이 교회를 새 교회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불려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매일 새로운 진리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12:10)

아멘

원본

2018-10-28(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21(D3)

2023-05-04(D5)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